

비전 vs 비전

내게 비전은 있으나 비전은 없습니다.

내게 없는 비전은 도달해야 할 위치, 달성해야 하는 숫자, 이뤄내야만 하는 업적입니다.

내게 비전은 성취해야 하는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무엇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

처음부터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는 적어도 이곳에서 일하는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생각은 더욱 명징해 집니다.

하지만 비전은 있습니다.

내게 있는 비전은 말 그대로 머리속에 그려지는 (미래에 대한) 어떤 이미지입니다. 그 이미지는 나의 (야망이나 욕망이 아닌) 소망을 투영하고 있고,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동반합니다. 비전은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섭리가운데, 매스터 플랜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(지어져 가는) 이미지입니다.

그 비전에 나는 작은 한 조각으로 존재하며 (퍼즐의 한 조각처럼) 그 역할로 만족합니다. 비전에 대한 그러한 이해 내지 자각은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초연하여 가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이유이자 동기가 됩니다. 나는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돈 것처럼 느껴집니다. 물론 비전에 대한 반환점일 수는 없습니다.

비전은 너무 거대해 작은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며, 내가 만들어내거나 설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단지, 내게 남겨진 시간과 지나온 여정을 반추해 볼 때, 이젠 소망센터의 먼 미래를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반환점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. 어쩌면 이제 한 걸음을 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

내겐 달성해야 할 숫자로서의 목표가 존재하진 않지만, 존재함으로 살아 내야 할 내용은 분명합니다. 매스터플랜에 적합한 모습으로, 퍼즐의 한 조각으로 존재하는 것. 그가

8.2025

존재했던 방식으로 힘써 존재하는 것. 나(우리)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있(다고 믿)습니다.

내가 보내진 그곳 (소망센터)로 오는 아이들을 사랑하고, 그 아이들이 지식과 지혜를 습득할 뿐 아니라 쉼과 위로와 행복을 느끼는데 작은 품을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.

나 뿐 아니라 소망센터를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매스터피스 of 한 조각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. 그건 분명 "그의 비전" 일 겁니다.

드디어 그의 비전이 완성되는 그의 시간까지 이 땅에 매스터피스 of 한 조각으로 존재하는 건, 어쩌면 세상에 보냄 받은 모두가 직면한 가장 위대하고도 벅찬 과제가 아닐까요. 때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위대한 도전 말입니다.

우리 계속 꿈꿔보아요. (계 7:9-10)

키국에 들어갈 준비하며

미국에서 윤재웅 드림